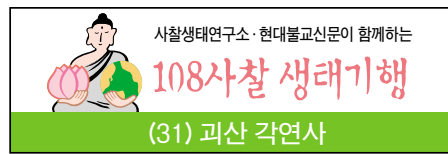




숲 속에 살면서도 나무 다루기를 천금같이 해온 옛 스님의 근검절약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각연사 비로전 기둥(왼쪽)과 단풍이 절정인 10월 각연사의 모습(오른쪽).

깊은 산 맑은 물 장광설 들리는 듯



각연사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태성마을에서 십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산사다. 걸어서 십릿길이면 자동차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겐 꽤 먼 길이지만, 호젓해서 걸어 들어가는 맛이 좋다. 덕가산과 보배산이 만들어내는 계곡 곳곳에 화강암 종류인 청석들이 보인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골짜기를 청석골이라 불렀었다. 사하촌은 절까지 가는 동안에 딱 한 곳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도중에 있다고 해서 '중말'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화전(火田)해서 먹고 살던 이들이 꽤나 많이 모여 살았으나, 지금은 세 가구만 남았다. 머지않아 이 중말 아래쪽으로 괴산과 연풍을 잇는 도로가 난다. 11개의 다리와 2개의 터널과 4개의 교차로가 포함된 도로공사이다. 산과 계곡들이 몇 년 동안 몸살을 앓게 생겼다.

청석골 곳곳에 갯벌들과 담뿌리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어쩌다 지나가는 승용차뿐, 인적이 드물어 버들치들도 인기척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물고기 가운데 가장 깊은 산속에 사는 물고기이다. 굳이 사람으로 치면 절골 안에서 토굴살이를 하는 스님과 같은 물고기이다.

9월께 가을이 깊설에 그득하던 고마리 노랑물봉선 붉은물봉선 여러 이삭여귀 사위질쟁 등도 간밤에 10월 서리를 맞아 풀이 죽었다. 햇살 좋은 곳에 금불초 지느러미 엉겅퀴 별개미취 산국 등이 말간 미소를 머금고 쓸쓸한 가을을 견뎌내고 있다. 금불초는 여러해

살이 들국화이다. 키는 50센티 미만으로, 들국화치고는 작은 편이다. 햇빛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지피용으로 심어두면 생태조경에 한 몫을 해낼 것이다.

각연사로 가는 접골의 숲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전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많은 소나무들은 능선 쪽으로 피해 달아나 활엽수들이 대체를 이루었다. 활엽수로는 참나무류 말고 오배자가 열린 붉나무를 비롯하여 신나무 누리장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밤나

뿜이를 돌아서면 각연사 기와지붕들이 먼저 보이고, 산그늘 아래 파랗게 이끼 낀 개울이 눈맛 좋게 소리를 내며 내려온다. 서기(瑞氣)까지 느끼게 하는 풍광이다. 물소리는 낭랑하기 이를 데 없고, 물속에 잠긴 단풍은 더욱 붉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梁塵便是長廣舌)

산색은 어찌 청정 법신이 아니리(山色豈非清淨身)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0년 전 그 운치 좋던 나

나용·사명 스님 기거했던 첩첩산중 명승지 땀질한 비로전 기둥, 옛 스님들 지혜에 감탄 거북등 골짜기 초본류 지천... 노루들의 '극락'

무 층층나무 왕버들 등등이 관찰된다. 신나무 단풍이 불타듯 붉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짙신이 헤어지면 벗어나서 이 나무에 걸여두고 갔다고 해서 '신나무'라고 불렀다. 또 신나무에서 검은 물감을 얻어 스님들의 장삼이나 법복을 물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색목(色木)'이라고도 했다. 지금은 가사 장삼의 염색도 거의가 화학염료에 의존한다.

누리장나무 열매가 다람쥐 눈처럼 앙증맞다. 분홍색 꽃받침은 꽃보다 더 정열적이다. 마치 여인네들의 저고리에 다는 브로치를 연상케 한다. 양지를 좋아하는 누리장나무는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산보

무다리가 사라지고 개울 위로 생동맞은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다는 점이. 담쟁이라도 울려서 시멘트를 덮어주면 자연에 대한 조그마한 대답은 될 것이다.

각연사는 신라 법흥왕 때인 515년에 유일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515년이라면 법흥왕이 즉위한 다음 해, 이차돈이 순교하기 훨씬 전의 일이니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설이다. 대웅전 앞마당에 네발나비와 빨나비가 여기저기 날아 있었다. 이들은 흙 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을 씹어먹는 중이다. 몸속에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산에 들에 단풍이 들면 곤충의 제왕인 왕사마



여인네들의 브로치를 연상케 하는 누리장 열매

귀의 전성시대에 막을 내린다. 이젠 팔을 뻗어 눈앞에 알짱대는 먹이감을 낚아챌 기운도 없다. 왕사마귀 한 마리가 대웅전 석축에 죽은 듯이 붙어 있다.

아무래도 각연사의 본전은 비로전이다. 보물로 지정된 비로자나불상도 비로전에 모셔져 있다. 비로전 이 없는 주산(主山)은 덕가산이다. 덕가산 줄기는 봉암사가 자리한 회양산으로 이어진다. 안산(案山)인 칠보산은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하루 종일 그늘에 가려있다. 조산(祖山)인 속리산은 그 너머에 자리하고 있고 보개산은 오른쪽 내백호로 앉아있다. 이렇듯 각연사는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천축(天蹟)이다. 이런

행국에선 도인이 살지 않으면 도적이 숨어든다고 했으니, 나용이 고려조의 도인이었던 사명당은 조선조의 도인이겠다.

비로전 정면의 기둥은 삼척부성이다. 상한 부분을 수술해 도려내고 다른 나무로 갈아 끼웠다. 스님들의 누더기 옷과 같다. 숲 속에 살면서도 나무 다루기를 천금같이 해온 옛 스님들의 나무 사람이 가슴 뭉클하게 와 닿는다. 비로전 앞마당에 달피나무(염주나무)와 늙은 대추나무가 서 있다. 각연사 대추나무는 우리나라 절집 안의 대추나무 가운데 가장 고집이다. 너무 노쇠하여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절에서 개울을 따라 통일대사비를 찾아가다보면 왼쪽으로 넓은 골짜기가 나타난다. 칠보산과 덕가산의 경계를 이루는 이곳에는 암자 하나는 총분히 들어서고도 남을 넓은 풀밭이 있다. 거기 비신을 잃어버린 귀부 하나가 묻혀 있어서 등산객들은 '거북등 골짜기'라고 부른다. 거북등 골짜기 초입에는 훤명굴을 비롯해 온갖 초본류들이 어지러이 뒤엉켜있다. 왕고들빼기 수크령 새팔 소리쟁이 진득찰 익모초 익새 익모초 등의 우리 풀들과 달맞이꽃을 비롯한 왕강아지풀 망초 개망초 돼지풀 환상덩굴 등 귀화식물들도 한데 어울려 있다.

산에 예뻐서인 풀밭은 햇볕이 좋어서 곤충들에게 극락이다. 9월엔 청미신나비가 여왕 노릇을 하고, 10월엔 산제비나비가 여왕 노릇을 한다.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노루가 필적 뛰여 산꼭대기로 도망을 간다. 거북등 골짜기는 초본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겨울에도 노루들이 내려와 마른 건초로 배를 채우고 가는 곳이다. 노루는 산림지대에 사는 초식동물이다. 수컷은 20센티 가량의 뿔을 갖고 있는데, 생후 1년이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한다. 가을에 짝을 짓고, 늦은 봄에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통일대사탑비로 가는 길은 지난해 무사 태풍으로 여기저기 패여서 어디가 개울인지,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안 된다. 통일대사비 앞에 노린재나무가 파란 열매를 탐스럽게 내달았다. 노린재나무는 어른 키 정도의 작은 나무이다. 가을 주변에 박새 어찌 직박구리 쇠딱새구리 등이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박새는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흔한 새이다. 그래서 뿔을 박(博)자를 붙여주었다. 목욕을 즐겨하기 때문에 박새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뿔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등산객들의 오랜 지혜이다.

칠보산의 남동사면 숲은 자연도가 높다. 참나무류는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나타나고 다른 교목으로는 느티나무 산뽕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등이 섞여 있다. 아교목과 관목으로는 붉나무 짝죽나무 쪽죽백 산초나무 생강나무 단풍나무 국수나무 철쭉 진달래 갯벌들 왕버들 등이 보인다.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면서 바위들이 많이 나타난다. 높이 오를수록 산도 빠르다. 따라서 소나무의 우점도도 점차 높아진다. 2002년 숲살이파리가 난동을 부리고 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칠보산의 9월은 버섯철이다. 송이버섯을 따라 마늘사람들이 뿔나게 다닌다. 이 등산로도 송이꾼들이 낸 길이다. 산중 사람들은 능이버섯과 자연산 표고버섯을 송이버섯보다 더 쳐준다. 칠보산에는 그 밖에 썩리버섯과 오이꽃버섯 등 여러 종류의 식용버섯들도 함께 난다. 그러나 버섯철은 단풍들이 들기가 바쁘게 끝난다. 9월말이면 버섯꾼들의 발걸음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다. 이 가을이 끝나면 숲길엔 더덕꾼들이 한뼉씩 다시 올라올 것이다.

글 · 사진=김재철(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학생모집

I. 모집학과 및 과정

개설학과	전 공	수여학위	
		석 사	박 사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석사	불교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명상학	명상학석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II. 모집인원
· 모집과정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명 · 연구과정 0명

III.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IV.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4. 12. 1(수) ~ 12. 15(수)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 일시 : 2004. 12. 18 (토) 9:00
3. 전형 방법 : · 석사과정 - 면접 및 구술고사
· 박사과정 - 영어시험 및 면접, 구술고사

V. 특 전
1.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응용불교 맞춤형 교육 실시, 우수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원 채용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부재산에 의해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www.bojangsa.co.kr

초빙교수를 모집합니다

I. 초빙분야

전 공	초빙인원	직 급	임용예정일	비 고
자아초월상담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계약제 임용
요가치료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

II. 지원자격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III.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③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④ 경력증명서
⑤ 석·박사학위논문
⑥ 자기소개서

IV. 제출기간 : 2004년 12월 15일까지

V. 제 출 처 : 우)153-83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행정실
Tel (02)808-6583, 3321
Fax (02)808-6581

VI.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영어로 강의 가능한 분 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주지: 전덕혜)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 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영각당 납골당 이용가격

단위 종류	위 수	이용 가격
개인단	1위	200만원~330만원
부부단	1위	380만원~550만원
가족단	12위	2,500만원
특별단	24위	4,000만원

*이용가격은 영구 보존 가격임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471-3322/(02)534-4444, Fax (031)471-3488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